

## 김구림 개인전 <삶과 죽음의 흔적>

KIM Kulim Solo Exhibition <Traces of Life and Death>



Yin and Yang 16-S-45, 2016, mixed media, 190x90x90cm

전 시 제 목	삶과 죽음의 흔적 (Traces of Life and Death)
전 시 기 간	2016 년 8 월 30 일 화요일 ~ 10 월 16 일 일요일
전 시 장 소	갤러리 아라리오 서울 종로구 북촌로 5길 84
전 시 작 품	10 여 점
관 램 시 간	화요일 - 일요일 10:00 - 19:00 월요일 휴관
관 램 요 금	무료
오프닝 리셉션	2016 년 8 월 30 일 화요일 오후 5 시
기 자 간담회	2016 년 8 월 29 일 월요일 오전 11 시

갤러리 아라리오 서울은 8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국 아방가르드의 선구자 김구림 작가의 개인전 《삶과 죽음의 흔적(Traces of Life and Death)》을 개최한다.

지난 2014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과 천안에서는 Part 1 《Part 1. 그는 아방가르드다》(천안) 과 Part2)(서울) 《Part 2. 진한 장미》로 나뉘어 김구림 작가의 50년대부터 2000년대의 작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1부 에서는 현존성과 시간성을 담고 있는 그의 작품을 통해 현상과 시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물질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치나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되는 50-80년대 작품을 위주로 선보였다. 2부에서는 1990년대 이후 그가 모든 생명의 이치이자 핵심이라고 상정한 '음.양'의 개념을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원리로 해석하여 다양한 기법과 이미지로 표현한 <음과 양> 시리즈와 <진한 장미>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음양 사상을 기반으로, 현대 사회에 예술적 비판을 가하며 지칠 줄 모르는 실험정신을 보여주는 김구림 작가가 사회적 재앙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동시대 인간이 지닌 삶과 죽음의 보편적 진실을 지배적으로 드러낸 신작 7 점이 공개된다.

전시장 지하 1층에서는 2015년 남산골한옥마을에서의 《동거동락》에서 장소여건상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던 <음양-배>작품이 작가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오래된 모터보트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구름이 떠가는 하늘 영상이 투사되는 바닥에, 옆면에는 금속판의 거울을 부착하여 무한한 하늘을 보여준다. 김남수 안무비평가는 이 작품에 대해 "김구림작가는 2010년대 현재의 문명진단을 이와 같은 인식론 하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작가 스스로 자유자재 변환자재의 형국으로 삶과 죽음 사이의 호환이자 죽음 속에 깃든 삶의 흐릿한 표정, 삶 속에서 이미 죽어버린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고 했다.

전시장 1층에는 <음양-무덤>이 설치된다. 아기의 신발이 놓여져 있는 관이 심어져 있는 무덤 여기저기 에는 태아의 몸체가 보인다. 이 작품은 국경과 국경 사이의 해변에서 벌거벗은 죽음을 맞이한 죽은 아기가 모티브로, 시리아 난민 중에서 해변으로 쓸려나온 어린아이의 시신이 21세기 우리 문명의 죽음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구림 작품에 등장하는 사물은 작가의 주변에 널려있는 인습적 사물이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인간의 사고도 변한다고 믿는 작가는, 세월이 바뀔에 따라 작품에 시대의 감각과 체취가 배어나올 수 밖에 없는 당위성에 관하여 말한다. 작가가 주위의 사물로부터 작품을 출발시키고 있는 것은 작가 자신이 이러한 대상물들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고, 또 이러한 동시대의 자신을 벗어날 수 없음을 직시한 까닭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80세 노장 작가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동시대 삶의 실상과 토대에 관한 이야기로서, 김구림 특유의 강한 감각적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작가소개

김구림 (b.1936)은 1958년 공보관 화랑에서의 첫 개인전 이래 50년대 말 앙포르멜과 60년대 서정적 추상에 잠시 머물다 60년대 중반부터 플라스틱, 기계부속품, 비닐 등을 사용한 매체 실험과 오브제 작업을 통해 전통적인 회화의 방법론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실험을 통한 조형적 해체를 추구해왔다. 1969년 실험그룹인 <제4그룹>을 결성하고, 한국현대사회의 기성문화를 비판한 해프닝 <콘돔과 카바마인>, 기성문화를 비판한 해프닝 <기성문화예술의 장례식>과 같은 일련의 퍼포먼스들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기성영화의 틀을 깬 한국 최초의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와 문명사회에서 미디어의 문제를 다룬 최초의 메일아트 <매스미디어의 유물>, 한국 최초의 대지 예술인 <현상에서 흔적으로>(1970)를 발표하는 등 연극과 영화, 무용의 무대미술과 연출활동까지 장르를 초월하며 줄곧 한국 현대미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던 김구림은 오늘날 일반화된 개념인 '장르의 해체'를 끊임없이 추구해온 한국전위미술의 선구자이다. 최근에는 음양사상을 기초로 한 다양한 매체와 실험을 모색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구림은 《Embeddedness: 60년대부터 현재, 한국의 필름과 비디오》, 테이트 모던, 런던 (2015), 《Lille 3000 페스티벌-르네상스》, 릴, 프랑스 (2015),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4), 《A Bigger Splash: Painting after Performance》, 테이트 모던, 런던 (2012) 등 다양한 국내외 전시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2016년 10월 14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Haus der Kunst Munchen의 그룹전 《Postwar – Art between the Pacific and Atlantic 1945 - 1965》에 참여할 예정이다.

■ 작품 이미지



*Yin and Yang 16-s. 54, 2016, mixed media, 165 x 98 x 98 cm*



*Yin and Yang 16-s. 45*, 2016, mixed media, 190 x 90 x 90 cm



*Yin and Yang 12-s. 25*, 2012, installation, size variable



*Yin and Yang 6-s. 65*, 2006, mixed media, bag 46 x 33 x 11 cm

■ 전시 서문

삶 안에 죽음 있고, 죽음 안에 삶 있다는 대칭적 세계, 김구림 작가

김남수(안무비평)

#1. "밀물에는 물고기가 개미를 먹고, 썰물에는 개미가 물고기를 먹는다." (태국 속담)

#2. "<도덕경>에 '도를 도라고 말하면 상도[常道]가 아니다'[道可道非常道]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조차 상도[常道]를 '영원한 도'[Eternal Tao]라고 번역해요. 영원불변이란 개념은 전통적 동양 사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동양인에게 모든 도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거든. 시간 속에서 항상스러운 도, 항상 시간과 더불어 가는 도라는 의미지요." (철학자 한병철과 대화 중에서 도을)

시대의 한가운데 꿰뚫는 정신

김구림 작가는 일관되게 시대의 한가운데[時中]를 꿰뚫어 버린다. 가령, 날아가는 시간의 화살에 정신의 화살을 날려서 정면충돌하게 한다. 이윽고 따라잡은 정신의 화살이 시간의 화살 몸체 속으로 들어가 그 몸체를 관통하면서 부수어버린다. 시간은 정신이 체험되면서 남긴 흔적으로 다시 출현한다. 그 출현하는 흔적들의 아카이브는 켜켜이 쌓인 시간의 레이어들을 거느리며, 인간의 감각 너머에서 초월적인 시간성에 경이로움을 의식하게 된다. 시간이란 정신의 모험 속에서 추체험되는 것이며, 정신의 인간 없이 시간은 그저 헤라클레이투스의 강물 같은 비유로나 남아있는 허무한 것이다. 정신의 모험! 김구림 작가의 시간성의 비밀은 이 장면에서 출현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도 道>라는 퍼포먼스에서 김구림 작가는 "화살과 화살이 맞부딪히듯" 날카로운 존재의 스탠스를 여과없이 드러냈었다. 칸딘스키식으로 말해서 '정신의 삼각형' 맨꼭대기에 올라서서 오연한 가부좌를 틀고, 무심히 앉아 있었다. 그 삼각형 내부에는 에밀레종 소리가 간격을 두고 울려퍼졌는데, 이것은 정신 내부의 상상력과 대상 없는 진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음향과 진동으로 정신적 고양이 일어나는 것. 이 퍼포먼스는 그 우뚝한 높이와 무심한 정지 그리고 주류의 위선적인 정신성을 전복하면서 실제로 도를 닦는 정신의 추구가 강렬한 빛처럼 육박해왔다. 삼각형의 꼭지점은 "오늘"이며, 그 "오늘"에는 '정신의 한 인간'이 백척간두의 절정에 앉아 있다는 것. 저 아래 삼각형의 하부는 대중과의 접촉면이지만, 삼각형의 밑변이 상승할수록 그 접촉면은 줄어들면서 대중은 이해하기 곤란해 한다는 것. 그것이 아방가르드의 '정신의 한 인간'이 감수해야 하는 현존의 몫이며, 두 세대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시간성의 비밀을 그노시스에 접촉하듯 어렵게나마 접근해 들어가는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2013년 김구림 작가 회고전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일관되게 시대의 한가운데를 꿰뚫으면서 정신의 화살이 시간의 화살을 관통해간 연대기를 만천하에 드러내놓은 기념비적인 전시였다. 이 전시에서 김구림 작가는 회화, 판화, 삽화, 안무, 연극, 영화, 건축, 큐레이팅, 작곡 등 예술의 전 분야를 전천후로 누비면서도 각 장르별로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킬 만한 아이디어를 투여하고 실험해온 것이 증명되었다.

김구림 작가 스스로는 그 규모면에서 다소 미흡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지만, 그 전시가 사회적 역사적 증명의 형태였다는 것은 한국 아방가르드의 인정투쟁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니, 그 천재성을 시기질투하는 세력들과 텃세싸움도 빈발했다. 시대의 한가운데[時中]를 꿰뚫는다는 것은 매체결정론자가 된대거나 스타일리스트로 고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재적소의 감각으로 자기 사상의 표현이 나아간다는 것이며, 생각의 크리스탈처럼 사방팔방 시방으로 다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속에서 항상스러운 도[道], 항상 시간과 더불어 가는 도[道]라는 것은 이러한 유연한 나아감[流, 흐름]과 결정화[晶, 크리스탈] 과정이 엮보인다.

종횡무진 자유자재로 현재 속의 정신

#3. 한 터럭 끝에서 확철히 깨달아 큰 광명을 놓으며

종횡무진으로 법에 자유자재하여야만

손닿는 대로 집어 들어도 옳지 않은 것이 없으리라.

\_[백암록 제 7 책 중에서]

"나의 작업은 시간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라는 작가의 발언은 무심한 듯하나 심오하다. 이 발언은 시간이라는 인식론, 즉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베르그송까지, 마명보살부터 다르마키르티까지 동서양의 석학들이 머리 싸매고 고심해온 시간성 자체의 인지와 타인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기보다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그 현재의 현행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발을 담고 있으면서, 그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폭넓은 시제를 해방시켜 하나의 크리스탈 속에 응축하는 김구림 작가의 작업 과정과 밀접하다. "시간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아우구스티누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속에 들어온 삼세의 시간들이 어떻게 작품이라는 '시간의 빗장이 벗겨진'(데리다) 장치로서 구현되는가 하는 이야기이다.

달리 말해서 김구림 작가는 '시간의 교환수'로서 자신의 시간성의 문제를 이미 작품 속에 융해시켜 놓고 종횡무진으로 법에 자유자재하고 있다. 우리는 김구림 작가의 최근 작품에서 그 손닿는 대로 집어 들어도 무엇이든 어긋남이 없는 정신의 모험, 그 결정체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김구림 작가의 초기 작업에 드러난 강렬한 섬광 같은 정신, 아방가르드의 불퇴전 기상을 높이 사면서 현재의 현행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빛어지고 결합되는 작품 세계를 애써 무시하려고 그린다. 그러나 거장의 사유 속에서 시간적 개념 '상[常]'을 영미나 독일의 철학 전통에 따라 "영원을 포착하고자 정점 또는 불모의 영점에서 정지해 있는 것"이라거나 "신성한 것에 대한 명상으로 인한 정신적 변화나 희열의 의미에서 황홀"의 시간성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흐름 속에서 지금 이 한 순간의 온 세계와 접촉되면서, 그 온 세계를 표현하면서, 무한히 많은 미세 지각들, 작은 외부의 힘들, 소용돌이, 용수철들의 형식을 이해해야 한다.

가령, 김구림 작가가 이번 전시 <삶과 죽음의 흔적>(아라리오 갤러리)에서 해골과 검은 신체의 부분, 눈의 이미지, 입술의 이미지, 태아의 몸체 같은 인간 육신의 부분적 오브제들을 악기 케이스라든가 하이힐이라든가 욕조라든가 여행용 가방이라든가 하는 '우묵한 공간'이 있는 용기에 담은 작업은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지독한 문명병, 퇴폐적이며 동물적인 단계로 서서히 스러져가는 정신의 고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결합 형식을 통해 새로운 삶의 통합을 꿈꾸는 미세 지각들이 나타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결합술[ars combinatorial]의 자유자재 형국을 철저하게 현실 세계의 현행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펼쳐져온 '오늘'의 비극과 악마적 재앙으로부터 뽑아냈다고 한다. 시리아 난민 중에서 해변으로 쓸려나온 어린아이의 시신은 세계적 주목 만큼이나 그 비극성이 21 세기 우리 문명의 죽임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 빈민 중에서 아무런 보편복지의 안전망 없이 쓸쓸하게 고독사하는 노인이라든가 죽음 이후에 마치 도구적 이성의 평범한 시체처리 과정으로서 화장이 일반화되고 그로 인해 죽음의 흔적으로서 해골과 뼈를 남기지 못하는 장례 풍습이라든가 대체로 여성을 중심으로 미적 추구의 극한으로서 성형수술을 택하여 이미 자기 몸의 일부는 죽음이라는 타자에 서서히 물들어버린, 그러나 자각되지 못하는 세대라든가 하는 우리 사회의 삶이 형해화되고 퇴락해가는 장면들을 예리하게 포획한 것이다.

김구림 작가는 단지 불행한 세태 속에 깃든 문명비판을 고집어내어 풍자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왜곡되고 굴절된 삶의 형식 속에 깃든 생명성의 흔적들을 다시 생각하는 차원에서 결합술을 사용하고 있다. 결합술이 르네상스와 바로크 사이에서 잠시 섬광처럼 분출했던 소위 마니에리즘, 즉 "인간의 오브제를 다수 결합하여 신의 얼굴을 보거나 신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사상에 입각해 있다. 김구림 작가의 작품들은 라캉이 말한 '응시'로서 흘깃 보듯이 우리를 응시하는데, 그때 그로테스크를 넘어 소름이 돋는 섬뜩함과 함께 결합술의 작품들이 묘한 신성성의 영역으로 접어든다. 그것은 신 같기도 하고 악마 같기도 하다. "붓다 속에 요괴 있고, 요괴 속에 붓다 있다"(모로호시 다이지로) 같은 형국이랄까. 선악을 가린다거나 성속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울렁더울렁이다.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덩어리진 몸체들끼리 어울렁더울렁하는 것. 그런 식으로 결합하는 손의 느낌 속에서 두 얼굴의 신성성이 합성된다는 것이 김구림 작가의 마니에리즘이다.

한 작품. 악기 케이스 속에 든 검은 팔은 어깨죽지에서 떨어져 나온 듯 붉고 울퉁불퉁하지만, 손 쪽으로 접근할수록 실제의 팔처럼 매끈할 뿐만 아니라 시계까지 차고 있다. 한쪽의 팔에 죽음으로부터 삶의

일상까지 하나로 스펙트럼화되어 있다. 케이스의 나머지 한쪽에는 식물이 당초무늬처럼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뻗어나가는 생명의 리듬을 보여주는데, 몇 마리 나비가 날고 있다. 색깔별로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엮나가 있거나 다른 종들끼리 뭉쳐 있다. 나비는 정신이 꾸는 꿈의 한 형식이다. 저 맞은 편이 살덩이가 검게 변색된 채로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는 어느덧 죽음의 붉은 색이 물들고 있는데, 이 편에서는 꿈 속에서 꿈을 꾸듯이 나비떼들이 서로 엮갈린 채 비행하고 있다. 아이러니하면서도 시적인 동시에 섬뜩한 직접 감각이 엄습한다.

그런가 하면, 욕조 속에 누운 해골은 흰 색이며, 한쪽 팔은 빼만 남았지만 다른 쪽 팔은 보기 좋게 살이 통통 오른 상태이다. 게다가 역시 시계까지 차고 있다. 머리에는 해골 위에 서양의 고색창연한 법관들의 헤어스타일로 짐작되는 권위적인 가발이 얹혀 있으며, 욕조 바깥으로 빠져나온 발들 역시 빼만 남은 상태이다. 그런데 그 욕조 안에는 마치 이 삶에 대한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미적인 욕망이 소유욕의 형태로서 다 하지 않은 듯 잡지에서 오려낸 미녀들의 얼굴들이 물의 분자들처럼 가득하다. 미녀들의 얼굴로 된 욕조 속의 물. 이 작품을 보노라면, 우리의 생활은 삶의 근본문제를 잃어버린 채, 본질적이지 않은 욕망들에 목을 매고 있고,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죽음을 뛰어넘는 충동 즉 죽음충동이 만연한 채로 모골이 송연한 한바탕의 쇼를 하고 있다.

김구림 작가의 이번 전시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무량한 부를 쌓아올렸음에도 욕망을 풀이하는 방식은 재벌과 범부들이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경제적 격차가 빈익빈 부익부를 넘어서 골을 메울 길 없는 양극화를 지나 '격차 사회'로 옮겨간 이 사회에서 그러나 부자나 빈자나 그 정신적 형식이 빈곤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빈곤의 정신, 정신의 빈곤을 부정하거나 풍자하지 않고, 다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생명수를 들이붓고자 하는 것이 작가의 내밀한 모티브가 아닌가.

#### #4. 대낮의 장엄한 소용돌이,

도시 한복판으로 검은 기관차가 무개차를 끌고 지나가고,  
살아남은 태아들이 철뚝길에 나와 깔깔거리며 놀고 있다.

\_최승호, 시 '대낮' 중에서

그러나 김구림 작가는 인위적인, 합성된 가짜 희망의, 근거없는 생명수 들이붓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는다. 그 눈과 입술, 해골, 태아의 살, 여성의 몸체 등등이 마치 사물의 법칙처럼 제 스스로 이 제형무상의 퍼포먼스를 펼쳐가는 셈이다. 그 위에 나비가 날고 있고, 해골 스스로 위엄을 부리며, 살풀이처럼 길고 흰 천이 드리워진 바닥에 누워 있다. 그것은 죽음의 형식인 동시에 우리 삶 안에 이미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떨어져 나온 정육점의 고기처럼 뭉크는 전율했다는데, 태아들의 살과 신체 부분들이 널부러져 있는 광경은 관람자가 오늘의 뭉크로 만들어 버린다. 그럼에도 태아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듯하다.

김구림 작가의 무의식은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사회의 재앙과 그 재앙에 다시 경쟁하는 새로운 재앙들의 오디션을 향해 있지만, 그 재앙의 표현으로서 인간 신체의 부분들은 악기 속에, 하이힐 속에, 욕조 속에 들어차서 비틀린 미소를 짓듯 짓웃고 사악하지만 여전히 그 결합의 틈새, 결합의 간극으로 새로운 삶의 표정을 가냘프게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김구림 작가의 '처형극장' 같은 안무이자 연출이다. 김구림 작가는 이러한 '처형극장' 상태의 사회를 응시하면서 이 시대의 한가운데를 여전히 꿰뚫어 버리고 있다. 꿰뚫은 도구가 시뻘겋게 단 쇠고챙이일 경우, 비명소리는 몸체에서 나는 것일까, 정신에서 나는 것일까. 단 한번에 항문에서 입까지 꿰뚫는 방식을 선호하는 작가는 여전히 정신의 모험을 자유자재로 즐긴다.

#### 음양-배

<음양 - 배>는 지난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이번에 김구림 작가의 의도대로 완전하게 구현된다. 바닥을 팔 수 없었던 지난번과 달리 아라리오 갤러리 바닥을 파고, 그 한 단계 내려간 일종의

지하계에 모터보트를 배치한다. 구름이 떠가는 하늘의 무심하고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풍경 영상은 천정에 설치되어 모터보트 주변의 금속판의 '거울'에 비쳐진다. '하늘우물'이란 모티브는 고구려 벽화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라고 항변하거나 절규할 때, 깔려 있는 의미이다.

'하늘우물'은 하늘 자체가 하나의 우물이며, 그 우물의 반영상이 현재의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늘과 달리 인간 사회는 이토록 재앙적이며 비극적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구림 작가의 '하늘우물'은 그 무심히 떠가는 구름 있는 하늘, 천지불인[天地不仁] 하는 하늘을 물끄러미 지켜볼수록 그 바닥에 위치한 모터보트의 비극이 도드라질 운명이다.

이 작품은 '말'이 없다. 그렇다고 '말'을 하기 위해 장치한 미디엄도 아니다. 가야트리 스피박에 따르면, 저 하층민들은 혀를 갖고 있고 실제로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 그리하여 의미화될 수 없는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작품의 모티브는 시리아 난민의 죽은 아기가 모티브이다. 하늘에 보다 가까운 존재가 국경과 국경 사이의 해변에서 벌거벗은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한 개죽음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고, 역설적으로 인간의 가슴을 친다.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김구림 작가의 작품은 '하늘호수'로써 그 인간 존재를 비취낸다. 이것은 압도적인 '처형극장'의 형식이자, 우리 문명의 비대칭적인 비극이다.

우뚝한 삼각형 위에 통나무 그루터기를 대좌 삼아서 도를 닦는 1970 년대의 형식은 그 당대의 위선과 가정법과 몰저항에 부딪혀가는 쟁점이 있다면, <음양-배>는 죽음이 만연한 문명임에도 그 죽음의 형식을 비루하고 만들고 심지어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세태에 철저하게 부딪혀가는 쟁점이 있다. 여기에 도[道]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래 도[道]라는 한자의 갑골문 기원을 보면, 역시 '처형극장'의 뉘앙스가 강하다. 낮선 장소에 접어든 이방인이 그 장소에서 첫번째 만난 원주민의 목을 베고 그 머리통을 마치 햇불삼아 들고서 이방의 장소에 깃든 정령의 기운을 쫓아내며 길을 열어갔다는 내용이다. 김구림 작가는 2010 년대 현재의 문명진단을 이와 같은 인식론 하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작가 스스로 자유자재 변환자재의 형국으로 삶과 죽음 사이의 호환이자 죽음 속에 깃든 삶의 흐릿한 표정, 삶 속에서 이미 죽어버린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터보트에 대해서 김구림 작가는 "귀신의 몸"이라는 표현을 했다. 얼마나 귀신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배라는 형태로 정[精]과 신[神]이 다시 뭉쳐버렸는가. 아닌게 아니라 그 뱃전 내부는 검게 칠해져서 어둠의 영역인데, 그것은 중음이 아니라 구전에 가까운 우묵함이다. 그 우묵함 속에 하얀 백골이 널부러져 있다. 그러나 해골 신세임에도 배라는 새로운 몸체로써 출현한 것이 기이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배라는 것은 이 금속거울의 반사가 담아내는 하늘을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바다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 증거로 뱃전 내부는 물이 그득하다. 그 물은 금속거울 형태가 지향하는 '구리거울'에 대하여 '물거울'이다. 동아시아에서 물거울을 뜻하는 감[鑑]은 <정관정요>를 따르면, '역사거울'이자 '사람거울'이다. 이것은 현실을 천천히 반추하는 거울인 셈이다. 그런데 그것이 "귀신의 몸"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태인가.

자, 지금 여기에는 '구리거울'과 '물거울'이 동시에 출현했다. 과거와 근미래를 잡아 묶는 시간-기계로서 '구리거울'이 작동하는 가운데 그 위에 '물거울'이 현실을 조망하는 서치라이트, 마치 '한[恨]이 맺혔기 때문에 타인과 타자의 고통에 누구보다 동일시하기 쉽고 측은지심을 발휘하기 좋은 형태로 무엇인가를 비추기 시작한다. 김구림 작가는 이 배를 시리아 난민의 배로 특정한다. 한쪽으로 살짝 기울 이 배의 각도는 현실로부터의 좌초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터로의 도착인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것은 미결정된 상태이다. 좌우간 이 황홀한 두 개의 거울이 해골과 배를 통해 '사람거울'[人鏡]로 나아간 광경은 김구림 작가가 얼마나 인지적 충격의 장치를 탁월하게 배치하는가부터 얼마나 현실에의 참여적 정신으로 "현행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흘러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사람거울'로서의 이 우묵한 뱃전 내부는 당연하게도 여인의 우묵한 신체 자체이기도 하다. 여기가 죽음의 영역이자 재생의 영역이 되는 것은 이 우묵함이 가진 '코라'[Khora], 즉 "골짜기 신으로서 빈 공간이 생산하는 무의식으로서 작용하는 것"의 개념이 작동하고 있다. 그 빈 공간은 그대로인데, 그 곡률의 부드러운 힘이 새로운 그 무엇을 암시하기라도 하듯. 마치 이 배는



바다라는 '궁창'뿐만 아니라 하늘이라는 '궁창' - <성경> 한글개역판의 표현 - 으로서도 항해하여 이 공간과 그 주변 환경에 도사린 억울함을 풀어내고 다시 생명력의 형태를 항해의 흔적으로서 당장 표현할 기세이다.

김구림 (b.1936)

1936 대한민국 경북 상주 생

주요전시 약력 및 활동

- 2016 Postwar: Art Between the Pacific and the Atlantic, 1945– 1965, Haus der Kunst Munchen, 뮌헨, 독일 (예정)
- 2016 개인전 《삶과 죽음의 흔적》,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 2016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도> 퍼포먼스 재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 2016 <기성문화예술의 장례식> 가두 퍼포먼스 재현, 마로니에공원, 서울
- 2016 《The Disappearing Figure: Art after Catastrophe》, 테이트, 런던, 영국
- 2016 <현상에서 흔적으로-불과 잔디에 의한 이벤트> 재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 2015 <소멸에서 생성으로> 퍼포먼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 2015 <거대한 초승달: 1960년대 예술과 동요-일본, 한국, 타이완>, 모리미술관, 도쿄, 일본
- 2015 《Embeddedness: 60년대부터 현재, 한국의 필름과 비디오》, 테이트, 런던, 영국
- 2015 《Lille 3000 페스티벌-르네상스》, 릴, 프랑스
- 2014 개인전 《사라진 아름다움》, 플레이스 막, 서울
- 2014 개인전 《Part 1. 그는 아방가르드다; Works from 50's - 90's》,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 2014 개인전 《Part 2. 진한 장미》,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 2013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2 《RES(V)OLUTION 1960-2013》, DNA 베를린 갤러리, 베를린, 독일
- 2012 《A Bigger Splash: Painting after Performance》, 테이트 모던, 런던, 영국
- 2010 《타이완 국제실험영화제》, <1/24초의 의미> 출품, 타이페이, 타이완
- 2010 《1970-80년대 한국의 역사적 개념미술 팔방미인》, 경기도미술관, 용인
- 2008 《Performing the City Kunst Aktionismus im Stadt Raum 60er and 70er Jaher》, Lothringer13, 독일, 뮌헨, 이태리, 밀라노, 프랑스, 파리 등
- 2008 《한국현대판화 1958-2008》,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 2008 《한국드로잉 100년 1870-1970》, 소마미술관, 서울
- 2008 《NOW JUMP 백남준 아트센터 개관전》, 용인
- 2007 개인전 《이인성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 2007 《한국의 행위미술 1967-200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 2006 《한국미술 100년 전통, 인간, 예술, 현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 2005 《2005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4 《1950년대 격동기의 한국미술》,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3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 2003 《아트북 아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 2002 개인전, 《김구림의 작은 회화전》,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서울
- 2001 《한국 현대미술과 전개 '전환과 역동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과천
- 2000 개인전, 《현존과 흔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
- 1999 《한국현대미술전》, 와이오밍 미술관, 와이오밍, 미국
- 1999 《한국현대미술전》, The Edwin A Ulrich Museum of Art, 캔자스, 미국
- 1997 작품 《카페' 낙서화》, 토탈미술관, 장흥
- 1996 《한국모더니즘의 전개 근대의 초극》, 금호미술관, 서울
- 1993 《한국현대판화 40년 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2 《김구림, 백남준 2인전: Discontinuities》, 찰스 워처치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 1991 《개인전》, The Modern Museum of Art, 로스앤젤레스, 미국
- 1991 《김구림, 백남준, 임충섭 3인전》 LACA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미국
- 1990 《침묵의 대화, 서양과 일본의 정물화》, 시즈오카 현립미술관, 시즈오카, 일본
- 1989 《KOREAN CONTEMPORARY OF ART》, 버겐카운티 미술관, 뉴저지, 미국
- 1988 《한국현대미술의 모더니즘 1970-1979》,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 1988 《한국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 1988 《몽디알 데스땅쁘-쁘띠 포르마 트리엔날레》, 샤말리에르, 프랑스
- 1987 《오늘의 미술가 6인》, 예술센터, 뉴저지, 미국
- 1986 《개인전》, 갤러리 뉴욕, 뉴욕, 미국
- 1986 《뿌리에서 현실로》, 루이스 아브론스 아트센터, 뉴욕, 미국
- 1986 《개인전》, 돌로레스안 갤러리, 뉴욕, 미국
- 1986 《ARTISTIC LICENSE 'BRUCE NAUMAN 외 7인전》, 갤러리 뉴욕, 뉴욕, 미국
- 1985 《미국 우수작가 선발전》, 링컨 센터, 뉴욕, 미국
- 1984 《개인전》, 아마노 갤러리, 오사카, 일본
- 1984 《제 8회 브리티시 국제 판화 비엔날레》, 런던, 영국
- 1984 《개인전》, Riverdale 갤러리, 뉴욕, 미국
- 1983 《유고슬라비아 국제 판화 비엔날레》,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 1983 《한국현대미술전 '70년대 후반 하나의 양상'》, 도쿄도 미술관, 도쿄, 일본
- 1982 이어령의 수필집 『말』 삽화제공, 문학사상
- 1982 연극 <통막살>, 무세중과 공연, 문예진흥원 문예회관 극장, 서울
- 1982 《최은희의 춤》, 연출 및 무대미술, 문예회관 대극장, 서울
- 1982 《한국현대미술의 위상전》, 교토 시립미술관, 교토, 일본
- 1981 퍼포먼스 <손톱과 시> 발표, 공간사랑, 서울
- 1981 창작무용 <이상의 날개> 연출, 안무, 의상, 무대미술, 세종문화회관, 서울
- 1981 《한국 드로잉전》, 브록클린 미술관, 뉴욕, 미국
- 1981 《제 16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핵 1>, <메일아트 작품 1>, 상파울로, 브라질

- 1981 구림 판화공방 개설, 서울
- 1980 《아시아 현대미술전》, 후쿠오카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1979 『공간』에 「서울의 도시계획 :꿈의 스케치」
- 1979 《드로잉, 판화, 조각, 회화》, 공간미술관, 부산
- 1978 판토마임 <돼지들의 산책>, 극단 에저또 공간사랑 소극장, 서울
- 1978 《제 4회 인도 트리엔날레》, 뉴델리, 인도
- 1978 《서울 국제 판화교류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 1977 《한국 현대 미술의 단면전》, 도쿄 센트럴 미술관, 도쿄, 일본
- 1977 《개인전> 가네꼬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 1977 대한민국 연극제 <참새와 기관차> 무대미술 참여,극단 에저또, 세실극장, 서울
- 1976 《제 5회 Open Encounter on Video 초대전>, 벨기에
- 1976 이정환의 『유리별대합실』 소설 삽화, 경향신문
- 1976 《제7회 까뉴 국제회화제》, 까뉴, 프랑스
- 1976 《몬테카를로 국제 회화제, 몬테카를로, 모나코
- 1975 《제 4회 국제 OPEN ENCOUNTER ON VIDEO 초대전》,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 1975 백남준과 《Rencontre International Ouverte de Video》 출품, 파리, 프랑스
- 1975 《에콜 드 서울》,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74 《Signifying》 국제초대전, 교토국립근대미술관, 교토, 일본
- 1974 《제 9회 일본국제 판화비엔날레》, 도쿄현대미술관, 도쿄, 일본
- 1974 《The 2nd International Impact Art Video-74》, 로잔, 스위스
- 1974 《서울비엔날레》, 서울
- 1974 《개인전》, 갤러리 16, 교토, 일본
- 1974 《개인전》 니레노기 화랑, 도쿄, 일본
- 1973 《제 12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상파울로, 브라질
- 1973 《김구림 설치작품 개인전》, 시로다 화랑, 도쿄, 일본
- 1972 《제 3회 AG전: 탈 관념의 세계》, 국립현대미술관경북공관, 서울
- 1971 《제 7회 파리비엔날레》, 파리 시립미술관, 파리, 프랑스
- 1971 《제 2회 AG전: 현실과 실현》, 국립현대미술관, 경북공, 서울
- 1970 《제 1회 서울국제현대음악제》, 백남준 작품 <피아노 위의 정사> 연출, 국립극장, 서울
- 1970 <제 4집단> 결성식, 을지로 소림다방, 서울
- 1970 예술단체 <제 4집단> 대표취임, 서울
- 1970 <불가해의 예술> 발표, 『공간』지 지면
- 1970 퍼포먼스 <도道>, 국립현대미술관 경북공, 서울
- 1970 제 4집단 정찬승, 고희와 <가두퍼포먼스> 총괄연출, 서울
- 1970 육교 위에서 풍선으로 길을 가로막는 퍼포먼스, 신세계백화점 앞 육교, 서울
- 1970 퍼포먼스 <콘돔과 카바마인>, 서울대 문리대 정문 앞, 서울
- 1970 제 4집단과 <기성문화예술과 기존 체제의 장례식 및 전국 결성대회>, 사직공원,

서울

- 1970 《무체전》, '제 4집단' 해체 선언, 공보관, 서울
- 1970 《제1회 AG전: 환원과 확장의 역학》, 국립중앙공보관, 얼음작품 <현상에서 흔적으로> 빌1970 대지예술 <현상에서 흔적으로> 발표, 살 곳이 다리 뚝방, 서울
- 1969 오태석의 <웨딩드레스>, 시츄아송 극단 앵글562 연출, 대구시립종합문화회관, 대구
- 1969 <산하역만년> 무대미술 참여, 국립극장, 서울
- 1969 한국최초 메일아트 우편예술 <매스미디어의 유물> 발표, 서울전역
- 1969 <바디페인팅> 발표 (T.B.C TV 방영), 서울
- 1969 한국최초 일렉트릭 아트, <공간구조> 발표
- 1969 《한국청년작가 11인전》, Solidaridad 화랑, 필리핀, 마닐라
- 1969 실험영화 8mm <문명, 여자, 돈> 연출
- 1969 <무제-환경예술> 발표, 아카데미 뮤직홀, 서울
- 1969 실험영화 16mm <1/24초의 의미> 제작발표, 필름퍼포먼스
- 1968 조선히otel 지하 보석상 인테리어 작업
- 1968 《회화 68'전》, 신문회관 화랑, 서울
- 1965 《신작가협회창립전》, 신문회관 화랑, 서울
- 1964 <태양의 죽음> 시리즈 발표
- 1958 첫 개인전, 공보관화랑, 대구

주요 작품 소장처

테이트모던미술관(영국),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호암미술관, 워커힐미술관, 이스라엘미술관(예루살렘), 베켄카운티미술관(미국), 프랑크푸르트시민회관(독일), 훗카이도근대미술관(일본), 홍익대학교 박물관, 뉴욕시티은행(미국),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일본), 대구문화예술회관, 부산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박물관, 대전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아라리오뮤지엄, 토탈미술관, 경기도미술관, 한국문예진흥원, 수원대학교미술관, 경주아사달조각공원, 서울시립미술관, 오사카예술센터(일본), 일현미술관, 한국영상자료원 외 다수

수상

- 1983년 대한민국무용제 무대미술상, 연극 미술상 수상
- 2006년 이인성 미술상 수상
- 2014년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수상

저서

- 판화 컬렉션, 서문당
- 동화집, 별하나 나 하나, 동화 출판사
- 서양판화가 100인과 판화감상, 미진사

[FOR IMMEDIATE RELEASE]

보도자료 문의

홍보팀 | 양민희 선임 M. 010-9249-9296 E. dream@arario.com

전시팀 | 김설희 매니저 M. 010-9352-0674 E. shkim@arariogallery.com